산업통상자원부	보도자료	

보도시점 2023. 6. 27.(화) 11:00 < 6.28.(수) 조간 > 배포 2023. 6. 27.(화)

경남 통상진흥기관협의회를 통해 지역 맞춤식 통상환경 대응 역량 강화

- 수출역군인 창원·마산 지역 기업의 통상 관련 애로 창구 가동
- 경남지역 기업의 목소리를 정부가 대외교섭에서 직접 대변, 통상환경 적응 돕는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는 '23년 6월 27일(화요일) 창원국제컨벤션센터에서 경남지역 수출기업 간담회를 개최했다.

경남지역 17개 수출 지원기관이 참여한 이번 자리에서 지역 기업들은 중동 및 아세안 지역 진출방안, 탄소국경조정제도(CBAM)·환경·사회·투명(ESG) 관련 대응 방안, 대(對)중국 대체 시장발굴, 해외인증 및 지재권 관련 비관세장벽 등 새로운 통상환경과 관련된 애로·건의 사항을 제기하였다.

한편, 간담회와 더불어 개최된 설명회에서 산업부는 한·중동 경제협력을 통한 해외 진출 및 무역구제제도 활용 방안을 지역 기업에 설명하였고, '세계적 쟁점(글로벌 이슈)을 통한 공급망 위험(리스크)과 시사점'을 주제로 한 통상무역 전문가의 강연이 이어졌다.

오늘 이 자리에서는 경남지역의 17개 수출지원기관이 모여 「경남지역 통상진흥기관 협의회」를 출범시켰다. 이번 협의회는 기관 간 소통과 협력을 통해 기업이 해외에서 겪는 통상 및 수출 문제를 발굴하고, 정부는 발굴된 기업의 통상애로를 외국과의 통상교섭 및 대외협상에 반영하여 신속하게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기업의 수출 전선을 배후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김종철 통상협력국장은 "통상주무 부처인 산업부와, 지자체·관계기관 ·기업과의 유기적인 소통"을 강조하며, "우리나라 수출 전선의 주역인 경남지역 기업들이 해외에서 직면하는 다양한 애로사항을 파악하여 이를 외국과의 통상교섭에 반영하여 적극적으로 해소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담당 부서	자유무역협정정책관 통상협정활용과	책임자	과 장	홍순파 (044-203-5760)
		담당자	사무관	신대근 (044-203-5768)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OPEN